

대림 제1주일

2024. 12. 1 (다해) 제2342호

함께 걸어나는
하느님 백성



복음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루카 21,27

안수 성모상

이춘만

2008

Mixed Media

44,0×12,5×19,0cm

광주가톨릭박물관

입 당 송 하느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저를 맡기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들이 저를 보고 좋아라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는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이다.

제 1 독 서 예레 33,14-16

제 2 독 서 1테살 3,12-4,2

화 답 송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주 님 당 신 께 제 영 혼 들 어 올 리 나 이 다

복음환호송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복 음 루카 21,25-28,34-36

영성체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가난한 이들을 위한 연대와 나눔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루카 21,28)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과 깨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앞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멸망은 인간의 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루카 13,34) 인간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느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숭배했고,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보다 강대국에게 의지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는 멸망했지만 하느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약한 인간의 죄로 하느님과 계약이 깨졌습니다. 그러나 자애로운 하느님은 인간과 계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루카 13,34) 흩어진 당신의 백성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허물어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려 사람의 아들이 오십니다. 멸망한 나라와 포로로 잡힌 이들을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나약한 인간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멸망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외면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을 외면해서 일어난 일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인간은 자신의 나약함을 인지하고 하느님께 의지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이 의지해야 할 분, 사람의 아들이 오신다면 깨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그리워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유배 중에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빌론 강기슭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우는”(시편 137,1)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대림시기를 시작하는 오늘!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 인간에게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한 해를 지나오며 한 인간의 삶을 보면 마치 허물어진 예루살렘, 허물어지고 허물어져 그 밑바닥까지 허물어진 예루살렘과 다르지 않습니다. 허물어진 밑바닥을 보다 보면 한 인간의 나약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무너진 벽돌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 놓아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무너진 것을 감춘다고 감출 수 없습니다. 다시 세워주실 수 있는 하느님의 자애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그날을 애타게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해주실 하느님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감출 수 없는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깨어 있는 자세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시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종민 요셉 신부
금암 본당



청소년위원회 (1)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통해 우리 광주대교구는 사목 목표로 네 개의 큰 기둥을 세웠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 청소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 생태환경을 살리는 교회, 모든 계층과 소통하는 교회

이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 해당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청소년위원회’다. 여기에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대와 여러 직분이 함께 모여 대화하고 방향을 찾아가자는 취지를 담았다. 지금의 교구장(당시 총대리)이신 옥현진 대주교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셨고 청소년사목국 사제들과 전문성을 갖춘 본당 사제, 청소년 관련 수도자, 그리고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교리교사 등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인원들을 2명씩 초대하여 21명의 위원이 제1차 청소년위원회(2022. 7. 30.)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정기 회의는 2개월 간격으로 홀수달(3, 5, 7, 9, 11월)에 이루어졌다.

초기 회의에서는 주로 청소년, 청년들이 본당과 교회에 바라는 점, 코로나 이후 본당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제4차 회의부터는 총대리 김영권 신부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주제를 정하여 강의를 듣고 그와 관련한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다. 첫 주제는 “방진된 청소년 심리 어떻게?”였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던 시기에,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청년의 일상과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기쁨과 고뇌, 학업과 취업,



청춘(청년, 청소년)을 구하는 서로의 대화 ‘청구서’

인간관계, 환경 문제, 그리고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답을 주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함께 답을 찾고자 하는 대화였다.

제5차 회의에서는 많은 청소년, 청년을 초대하여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하기로 결정했다. 제6차 회의부터는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청소년사목국에서 참가 신청을 받고, 미리 설문을 보내 대화의 주제를 준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청춘(청년, 청소년)을 구하는 서로의 대화’(약칭: 청구서)를 열게 되었다(2023.11.11.). 본당 신부님, 수녀님, 청소년, 청년, 부모, 본당 사목위원 등 75명이 청소년센터에서 함께 모여 6개조를 이루어 대화를 나누었다. 사전질문으로 삶의 우선순위, 신앙 고민 상담 대상, 본당 활성화에 중요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조사했는데 청소년의 대답과 어른들이 예상하는 청소년의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가르치기보다는 이해하며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이어지는 대화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친교의 공간 필요하다는 요청, 어른 신자들과 친교를 이룰 방법 모색, 교회의 변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다짐 등 특별한 결과를 도출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자리 자체가 주는 의미는 컸다.

김영호 비오 신부
성소국장 겸 청소년사목국장

하느님께 받은 것으로 이루어진 삶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에게 있어 그 대답이 되어주신 분은 하느님이셨습니다. 제가 지금 소유하고 살아가 수 있게 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을 통하여 저에게 주어졌음을 알게 된 순간, 저는 하느님께서 늘 저와 함께, 그리고 제 가장 깊은 곳에서 자리를 지키며 제가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크게 다쳐 사경을 헤맬 때는 죽음이라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반찬으로 이루어진 식사 안에서는 이 밥알 하나하나를 나에게 전해 주시기 위해 하느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에 놀라워할 수 있었고, 또 이만큼이나 저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 세상의 부조리함에 힘들고 어려울 때조차 하느님께서 저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며 저는 하느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실 만큼 저를 사랑하고 계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사랑에 힘입어 제가 살아가 수 있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제 삶의 모든 부분은 하느님을 통하

여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었기에 저는 하루하루 하느님께 감사하며 제가 받은 모든 것을 다시 하느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사제의 삶이었고, 저는 이 성소 역시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말씀

처럼, 먼저 하느님께서 저를 기억하시고, 저에게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제가 받은 것을 다시 하느님께 돌려드리며 찬미해 드릴 수 있는 길인 사제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 것입니다. 때때로 제가 받은 것을 까먹고, 원래 제 소유인양 살아가며 힘들어할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사제의 부르심에만 국한된 삶이 아니라,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의 삶에도 해당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삶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되돌려 드리는 삶을 살 때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다 함께 살아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현 요셉 신부
노대동 본당

위키드

Wicked, 2024



“당신의 선한 영을 내리시어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만나를 끊지 않으셨으며 그들의 목마름을 보시고 물을 주셨습니다”(누헤 9,20).

11월 20일 개봉한 존 추 감독의 「위키드」는 2003년 10월 뉴욕

브로드웨이에서의 초연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6천만 명이 관람한 동명의 뮤지컬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다. 이번에 개봉하는 것은 파트 1이고, 2025년 파트 2가 개봉할 예정이다.

「위키드」의 배경이 되는 것은 「오즈의 마법사」이다. 캔자스에 사는 소녀 도로시가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마법의 대륙 오즈에 도착해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과 겁쟁이 사자를 만나 친구가 되는데, 함께 에메랄드 시에 사는 마법사를 찾아가게 된다. 오즈의 마법사는 사악한 서쪽 마녀를 쓰러뜨리면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조건을 걸고, 도로시와 친구들은 힘들게 마녀를 물리치게 된다.

「위키드」는 「오즈의 마법사」를 재해석해 서쪽 마녀의 관점에서 오즈의 세계를 새롭게 그려낸다. 서쪽 마녀를 물리쳤다는 소식에 모두가 기뻐하는데, 착한 마녀인 ‘글린다’와 악한 마녀 ‘엘파바’가 친구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글린다는 엘파바에 대한 과거를 회상하며 영화를 시작한다.

엘파바는 초록색 피부를 가지고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놀림과 왕따의 대상으로 자란다. 장애가 있는 여동생 ‘네사로즈’가 마법 학교인 쉬즈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따라갔다가 우연히 그녀의 마법 능력을 학장 ‘모리블’ 여사가 알게 되면서 여동생과 함께 학교에 다니게 되고, 인기가 많은 글린다와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게 된다. 너무나 다른 글린다와 엘파바는 앙숙처럼 지내다가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

오즈의 마법사에서 악한 서쪽 마녀로 등장했던 엘파

바는 악하게 태어났을까? 위키드에서 엘파바는 초록색 피부 외에는 보통의 아이로 태어났지만, 사람들의 편견으로 말미암아 소외된 인물로 자란다. 학교에 우연히 진학해 그녀의 특별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여전히 학생들 사이에서 혐오의 대상으로 남는다. 학생들이 몰래 파티에 갔을 때 엘파바도 그곳에 따라가게 되는데, 음악도 없이 혼자 춤을 추는 엘파바를 다들 외면하지만 글린다가 그녀와 함께 춤을 추면서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게 된다.

한편 엘파바는 말하는 동물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말하는 염소인 딜라몬드 교수도 더 이상 강의를 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에게 갇힌 불쌍한 새끼 사자를 도망치게 한다. 엘파바는 동물들을 도우려고 에메랄드 시의 마법사를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되고, 엘파바는 친구가 된 글린다와 함께 에메랄드 시로 떠나게 되고, 거기에서 어두운 비밀을 마주하게 된다.



악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느님 창조의 신비 안에서 모든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함을 가지고 태어난다. 악을 선의 결핍으로 바라본다면, 선의 결핍이 우리 안에 자리한다. 그것 때문에 인간적인 편견과 혐오로 나와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불신이 자라나 악은 사람 안에서 하느님 뜻에 반하는 죄를 저지르게 한다.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듯 타인 안에도 하느님의 뜻이 자리한다는 것을 믿으며, 선한 지향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

조용준 니콜라오 신부
성바오로 수도회, 가톨릭영화제 집행위원장

교구장 동정



- 12월 1일 사목방문(조곡동)
교구 성가합창제(교구청)
- 12월 2일 미주 가톨릭평화신문 신앙강좌 대림특강
가톨릭 사진대전 시상식
- 12월 3-4일 사제평생교육 담당자회의 및
엠마오연수원 운영위원회
- 12월 7일 생태환경농업연구소 이사회
- 12월 8일 사목방문(용봉동)

군중후원회 미사

일시 : 12.6(금) 16:00
장소 : 교구청(쌍촌동) 3층 경당
문의 : 062) 380-2843
※ 입대를 앞둔 예비군인들을 위한
대주교님 안수 있습니다.

교구 선교(볼리비아) 후원 안내



천주교 광주대교구 선교 후원 계좌
광주은행 170-127-003379
(재)광주구천주교(선교)
문의 : 062) 380-2821

광주가톨릭박물관 특별기획전시

이춘만 크리스티나 작가 소장작품전

Prayer: 이춘만의 기도展



2024. 10. 11 Fri

2025. 7. 25 Fri

광주가톨릭박물관 특별기획전시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투카 1.38

광주가톨릭박물관
GWANGJU CATHOLIC MUSEUM

cpbc 광주가톨릭평화방송

www.kjpb.com FM 99.9 MHz FM 99.5 MHz

YouTube 페이스북 광주가톨릭평화방송 OnAir

오늘의 강론 [월-토 (본방송) 06:50-07:00 / (재방송) 16:50-17:00, 23:50-24:00]

12.2(월)-4(수) 박석렬 신부(금호2동 본당) / 12.5(목)-7(토) 고제희 신부(산정동 준대성전 고해성사 전담)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종교 프로그램)' 월요일 코너 - '신부들의 수다' [12.2(월) 14:05-14:55]



강근태 신부(사회사목국), 박시흥 신부(치평동 본당 보좌), 최동현 신부(풍암동 본당 보좌)로 새롭게 구성된 6기 신부들의 유쾌한 수다가 있는 시간입니다. 12.2(월)에는 '겨울'을 주제로 신학교 겨울방학 이야기와 겨울 에피소드를 나눠보고, '시가 남느냐? 목소리가 남느냐?' 시간에는 강근태 신부의 도전이 이어집니다. 이 시간은 유튜브('광주가톨릭평화방송' 검색), 어플 'cpbc뽕'을 통해 화면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은 유튜브('광주가톨릭평화방송' 검색), 어플 'cpbc뽕'을 통해 화면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오늘(사시 프로그램)' 매주 수요일 코너 - '김문웅의 날씨이야기' [12.4(수) 17:30-17:45]

기후 위기 시대, 광주기상청 김문웅 예보관이 출연해 실생활에 필요한 날씨와 기후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방송 들으면서 #5005(100원 유료), 뽕톡(무료)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월말에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성바오로 여행사(문의 : 062) 381-9004 / 홈페이지 : www.paulustour.com)

성모님 발현지(루르드, 파티마), 바르셀로나(12일) 3.11(화)-22(토)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www.gclei.kr 062) 380-2210~4

갤러리 380-2213 | 책더하기사랑도서관 380-2218

2024학년도 겨울특강 안내

오르간 개인레슨(A)

강사 : 고근영

- 기초 A) 25.1.8-2.5, 4주간 / 매주 수 개별협의를 / 수강료 14만 원
- 전문 A) 25.1.8-2.5, 4주간 / 매주 수 개별협의를 / 수강료 16만 원

오르간 개인레슨(B)

강사 : 이윤수

- 기초 A) 12.30-25.2.18, 7주간 / 매주 월, 화 개별협의를 / 수강료 24만 원
- 전문 A) 12.30-25.2.18, 7주간 / 매주 월, 화 개별협의를 / 수강료 28만 원

첼로 개인레슨(A)

강사 : 윤소현

- 25.1.3-2.21, 8주간 / 매주 금 개별협의를 / 수강료 19만 원

피아노 개인레슨

강사 : 천현주

- 초급) 25.1.6-2.17, 7주간 / 매주 월 개별협의를 / 수강료 14만 원
- 중급) 25.1.6-2.17, 7주간 / 매주 월 개별협의를 / 수강료 19만 원

※ 수강신청 방법 : 전화, 홈페이지 www.gclei.kr

※ 수강료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홈페이지 온라인결제
- 입금계좌 : 광주)170-107-051747 (재)광주구천주교회(교육원)

※ 수강생 주차장 이용은 차량번호 등록 후 가능 ※ 수강문의 : 062) 380-2210~4

시민정치학교
2024. 3.6 - 12.4 매월 첫 주 수요일 19:00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

12.10.04 - 10강 시의 시대
박태웅 /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

사회복지법인 Caritas GWANGJU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 이웃에게
기쁨과 희망의 손길이 되어주세요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모아
교구 내 산하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사목을 지원하고
이주민, 노숙인 등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사용합니다.

<후원 계좌 안내>

농협 605-01-353182

광주은행 019-107-310370

국민은행 551-01-1449-309

신협 131-022-255227

- 기부금 영수증은 입금자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시 동명이인 확인을 위해 후원회로 연락바랍니다.

- 신청 및 문의 : 062) 510-2881

생애주기별기부 '나눔의 첫걸음' 안내

돌, 생일, 축일, 결혼, 취업, 승진,
개업, 회갑 등 의미있는 날의 기쁨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을
더욱 값지게 하는 애덕 실천입니다.
난치병 환우와 미혼모자에게 나눠주세요.

기관·단체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 신학과정 모집

대상 :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원서 : 11.11(월)~2.14(금)
문의 : 02) 745-8339, 홈페이지 참조

'고요속의 현존' 및 '하·통' 3시간 피정

고·현 일시 : 12.5(목) 19:30
하·통 일시 : 12.22(주일) 14:00
대상 : 남·여 청년
장소 : 사랑의 씨튼 수녀회 본원(본촌동)
문의 : 010-5528-3217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첫 토 신심미사

일시 : 12.7(토) 09:20
장소 : 교구청(쌍촌동) 성당
문의 : 총무 010-3162-0112

소화자매원 후원자 및 직원 미사

일시 : 12.11(수) 14:00
장소 : 소화자매원 지하 성당
문의 : 062) 675-4023

한재호 신부의 묵시문학

일시 : 12.16(월) 10:00~15:30
장소 : 까리따스 교육관
참가비 : 2만 원(중식 제공)
신청 : 12.12(목)까지
문의 : 010-7430-1401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권민자 수녀)

일시 : 12.13(금) 17:00~15(주일) 15:00
1.10(금) 17:00~12(주일) 15:00
2.14(금) 17:00~16(주일) 15:00
장소 : 수원교구 양지 영성교육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 266
문의 : 031) 321-9054, 9060, 010-4154-0885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 12.21(토)~22(주일), 2.14(금)~15(토)
3박 4일 : 12.5(목)~8(주일)
4박 5일 : 2.17(월)~21(금)
8박 9일 : 12.26(목)~1.3(금), 1.6(월)~14(화)
40일 : 12.14(토)~1.22(수)
장소 :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 010-4906-5722, 031) 953-6932

청주 초정성령화관 금요철야

기간 : 매주 (금) 21:00~(토) 03:00
강사 : 전국 유명강사
서클 : 초치원역 신한은행 앞 19:00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 19:20
문의 : 043) 213-9103, 010-5482-6744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

개강 : 1월 개강(각 6주 과정)
강좌 : 문화유산으로 보는 교회사(중세)
고대 그리스의 시간과 그리스도교 신학
구약성경 아카데미: 모세의 삶과 신앙
방법 :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문의 : 02) 3276-7733, center.jesuits.kr

2024 행복한 겨울캠프 접수 안내

기간 : 1.3(금)~5(주일), 2박 3일
장소 : 양업고등학교
대상 : 현재 중학교 1~2학년
접수 : 홈페이지 12.17(화) 10:00부터 접수순
회비 : 15만 원(접수확정 문자 후 이체)
문의 : 043) 260-5076

제주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연말연시(한라산 포함) : 12.30(월)~1.2(목)
한라산눈꽃산행 : 1.17(금)~19(주일)
1.23(목)~25(토), 2.8(토)~10(월)
2.14(금)~16(주일), 2.22(토)~24(월)
문의 : 02) 773-1463, 064) 756-6009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피정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쉽고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접수 중)
한라산포함 : 1.11(토)~13(월)
1.16(목)~18(토), 1.20(월)~22(수)
1.24(금)~26(주일), 2.7(금)~9(주일)

연말연시(한라산) : 12.29(주일)~1.1(수)
대상 :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문의 : 02) 773-1455, 064) 796-4182

2025년도 봄학기 CPE 학생모집

기간 : 2.11(화)~5.27(화), 2.15(토)~5.31(토)
장소 : 천주교성요한병원CPE센터
문의 : 010-2671-8174

2025년 국악성이 장구반주 수강생 모집

일시 : 2.16(주일) 매월 셋째 주 주일
중, 초급 14:00~20:00
장소 : 일곡동 명상의 집
강사 : 강수근 신부, 송민영 선생
수강료 : 연간 50만 원
계좌 : 국민은행 295401-01-187345
송민영(국악성가)
문의 : 010-2279-0255

국악성이 한소리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모집 : 한소리합창단원 0명(성가대원 환영)
일시 : 매주 월 19:00
장소 : 일곡동 명상의 집
문의 : 한소리합창단 010-3609-1089,
010-3609-1654

제12회 신앙체험수기 공모

주제 :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거나
이웃에 전하고 실천한 사례,
신앙의 힘으로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이야기 등
분량 : 200자 원고지 기준 50매 안팎
(A4, 10point, 5장 내외)
마감 : 12.31(화), 마감일 소인 유효
주소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30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
신앙 체험 수기 공모 담당자 앞 우) 04552
이메일 : soogi@cpbc.co.kr
문의 : 02) 2270-2421~4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장소 : 도쿄, 북해도, 나가사키, 오사카, 아키타
순례비 : 3박 4일 120만 원(월 1회)
문의 : 010-3645-9028

선교·수도회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기간 : 12.6(금)~8(주일) 14:00 그 외는 전화
장소 : 방림동 성당
문의 : 010-9353-1773(미리연락)

예수고난회 송년 통독 피정

기간 : 12.30(월)~1.1(수)
장소 : 일곡동 명상의 집
피정비 : 1인 19만 원
문의 : 062) 571-5004, 8004

상설고해소

<< 교구청 성당

- 일시 : 화요일 13:30~15:00
금요일 18:30~20:00
- 장소 : 교구청 성당 고해실
- 성사집전
 - 화요일 : 교구 내 수도회 소속 신부님
 - 금요일 : 골롬반회 신부님
- 문의 : 062) 380-2210~5

<< 산정동 준대성전

- 일시 : 수요일~주일 10:00~12:00
화요일~토요일 14:00~16:00
(월요일 휴무)
- 장소 : 산정동 준대성전 고해실(2층)
- 문의 : 061) 274-1004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밤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에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함께 바치기 바랍니다.

Ch 천주교 광주대교구 카카오톡 채널

교구 소식, 주보 빛고를 등
다양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에 “천주교 광주대교구” 입력 후
천주교 광주대교구 클릭 후 채널 추가